

‘골목상권’ 자영업자 파산 경보

이발소 88% 세탁소 62% “1년에 2000만원도 못벌어”

광주·여수 등 상당수 월세도 벽차...5곳중 1곳 폐업 고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등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한 달에 167만원도 못벌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세금, 종업원 월급,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에 허덕이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광주 270곳, 여수 85곳 등 전국 10개 도시 1760개 숙박·목욕·이음·미용·피부미용·세탁업소를 면접 조사한 결과 이음업의 88.7%, 세탁업의 62.3%가 연

매출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미용업은 48.4%, 피부미용업은 38.1%가 연매출이 2000만원에 못미쳤고 숙박업과 목욕업은 29.2%, 17.1%가 이에 해당했다. 조사 업체 중 연매출 4000만 원을 넘는 업소가 각각 1.7%(이음업)와 5.3%(세탁업)에 불과했다.

이들 업종의 평균 월세도 ▲미용업 129만원 ▲피부미용업 129만원 ▲세탁업 54만원 ▲이음업 37만원 ▲숙박업 603만원 ▲목욕업 8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매출 2000만 원을 올리는 자영업자의 월매출을 167만 원으로 환산하면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월세를 감당

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어려운 경영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업소의 비율은 목욕업이 79.5%로 가장 높았고 숙박업(73.2%), 피부미용업(64.6%), 미용업(59.5%), 세탁업(51.9%), 이음업(49.8%) 등 대부분 50%를 웃돌았다. 부채 규모는 ▲숙박업 8억9600만원 ▲목욕업 8억6600만원 ▲미용업 7200만원 ▲피부미용업 6300만원 ▲이음업 3900만원 ▲세탁업 3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세탁업·이음업·목욕업 5곳 중 1개가 폐업을 생각하는 등 자영업

자들 스스로 경영난을 타개할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93.1%), 목욕업(90.2%), 이음업(90.6%) 가계 10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자들은 경영상 예외사항(중복응답)으로 ▲과다한 동일 업종 창업 ▲시설·서비스의 개·보수 부담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점포 임대료 인상 ▲정부의 비현실적 규제·단속 등을 꼽았다.

정진욱 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은 “광주·전남을 포함해 조사 지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영업 비중이 높은 공중위생업종 활성을 위해서는 영업·시설·위생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디자인설계 경진대회

특성화고생 9명 시상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2회 디자인설계 경진대회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의준)은 13일 ‘제2회 디자인설계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했다. 이번 대회는 젊고 패기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디자인실제(Auto CAD) 수준을 평가해 지역 전략산업인 금형산업과 가이자동차·삼성전자 등 관련 중소기업에 맞춤형 설계인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9일 개최됐다.

광주·전남지역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거쳐 5개 학교 28명이 디자인설계 실기를 겨뤘다. 대회 결과 대상에는 광주공고 정재현, 최우수상 나주공고 김홍진·광주공고 김현태, 우수상 나주공고 박

재현·광주공고 최성수, 정려상 전자공고 안태영 안지환·금마공고 이기범·나주공고 김문 등이 선정됐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설계 재능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산업체 꿈나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디자인설계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학생 34% “집보다 차 먼저 살 것”

9.6%는 본인 차량 보유

대학생 3분의 1 이상이 집을 사기에 앞서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현대모비스가 전국 18개 대학의 남녀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한 ‘2012 대학생 자동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93명(34.4%)가 집

보다 차를 먼저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또 9.6%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유 차량은 아반떼(15.8%), 쏘나타(14.6%), K5(9.7%) 순이었다.

56.7%가 운전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운전면허 취득 나이는 만 20.7세였다. 첫차 구

매 시기로는 졸업 후 4~5년 내를 꼽는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5~6년 내 18%, 3~4년 내 11% 순이었다.

차량 선택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로는 31.6%가 디자인을 꼽았고 안전·편의·AS(24.1%), 연비(16.7%), 가격(14.9%), 성능(12.7%) 순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광주 R&D특구 기술이전 62억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기술사업화센터(이하 광주센터)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하는 ‘특구 기술사업화사업’ 16개 과제에 2년간 6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16개 과제는 ▲광기반 융복합 9개 ▲친환경자동차 2개 ▲스마트그리드 2개 ▲바이오소재 3개 등이다.

광주센터는 이들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은 물론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제품디자인, 양산 설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광주센터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1029억원의 신규 매출과 4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국제공동기술사업화를 통해 해외우수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 2개의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과 25억원의 신규 매출도 예상하고 있다.

배정된 연구개발특구 광주센터장은 “좋은 기술이 기업에 전파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후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 게이밍 노트북 업그레이드 모델 출시

삼성전자는 ‘시리즈7 게이밍 엘로우 3D’의 사양을 업그레이드 한 ‘리프레시 모델’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리프레시 모델에는 인텔 3세대 코어 프로세서 i7-3610QM을 적용해 2세대 프로세서보다 배터리 성능과 반응 속도가 개선됐다.

대졸 취업자 1000만명 돌파

올 2분기 1019만명...30년만에 10배 급증

대졸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대졸이다. 높은 진학률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고학력자가 늘어날수록 구인과 구직 규모의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 미스매치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졸 취업자 1000만명 시대...노동시장 주력=13일 통계청 고용통계를 보면 2분기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 취업자는 1019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72만6000명)보다 46만4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인 43만1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대졸 이상 취업자 증가율은 4.8%로 전체 취업자 늘어난 비율(1.8%)의 2.7배,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1.3%)의 3.7배나 됐다.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30년 전인 1982년(111만명)에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988년 200만명(206만명), 2000년 500만명(521만명), 2004년(704만명), 2007년 800만명(821만명), 2010년 900만명(928만명) 선을 각각 넘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7%에서 1985년(10.3%)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1996년(20.2%) 20%, 2003년(30.2%)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0%를 기록했다. 10명 가운데 4명꼴이다.

◇이젠 대졸이 고용시장 주력=고용시장의 주력 학력이 대졸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작년 2분기엔 대졸이 고졸보다 1만6000명 많았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 2분기엔

45만2000명까지 격차를 벌렸다. 취업자 가운데 고졸 비중은 30년 전인 1982년 25.0%에서 1985년(30.1%) 30%, 1991년(40.4%) 40%를 넘어 2002년 44.4%로 최고점에 이르러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작년(39.8%)에는 21년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32.44 (-13.96)
코스닥지수	478.40 (+2.89)
금리 (국고채 3년)	2.82% (+0.03)
원·달러 환율	1,131.10원 (+0.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창업 지원...50억 규모 광주 엔젤투자펀드 조성

광주 지역에서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엔젤투자(개인투자자) 펀드가 결성됐다.

광주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은행, 한국벤처투자, 광주테크노파크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50억원 규모의 ‘광주 엔젤투자 매칭펀드 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청 한국모태펀드 40억원과 광주시와 광주은행이 각각 출자한 5억원을 보탬 계획이다.

펀드 총괄 관리는 한국벤처투자가 맡으며 광주테크노파크는 투자자 모집과 1차 적격심사 등을 담당한다. 투자대상은 광주지역 예비창업자나 3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으로, 기업 가치 50억원 이하인 기업에는 최대 3억원까지 투자된다. 참여의향이 있는 투자자는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나 광주테크노파크(062-602-7114)로 신청하면 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월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후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붕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묘사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악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